

제2대 당진시의회 개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제2대 당진시의회(의장 이재광)는 지난 7월 8일 ‘제2대 당진시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재광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2대 당진시의회는 당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청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며, 임기가 끝나는 날 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행복지수 향

상에 노력하는 의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대 시의회는 다년간의 의정활동경험이 풍부한 재선 이상 의원 7명과 패기 넘치는 젊은 초선의원 5명으로 구성돼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제2대 시의원들의 임기는 2018년 6월 까지다.



의장단 선거



취임선서

제2대 당진시의회는 개원에 앞서 지난 6월 9일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7월 7일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 전반기 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 본회의장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는 의장에 이재광 의원, 부의장에 편명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인효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원 구성 현황 제2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 장 Chairman  이재광 Lee Jae Gwang (라선거구)		부의장 Vice Chairman  편명희 Pyeon Myeong Hee (가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 Council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Chairman  이종윤 Lee Jong Youn (나선거구)		총무위원회 General Affairs Committee 위원장 Chairman  인효식 In Hyo Sik (다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Industry & Construction Committee 위원장 Chairman  정상영 Jeong Sang Young (다선거구)			
부위원장 Vice Chairman  김기재 Kim Ki Jae (가선거구)		부위원장 Vice Chairman  양기림 Yang Ki Lim (비례대표)	
부위원장 Vice Chairman  이종윤 Lee Jong Youn (나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안효권 An Hyo Gwon (나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맹봉재 Maeng Bung Jae (가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양창모 Yang Chang Mo (라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편명희 Pyeon Myeong Hee (가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양기림 Yang Ki Lim (비례대표)		위원 Council Member  안효권 An Hyo Gwon (나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박창화 Park Jang Haw (다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양창모 Yang Chang Mo (라선거구)	
		위원 Council Member  황선숙 Hwang Sun Sook (비례대표)	

VISION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제2대 당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당진시의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의정연수,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대비 현장방문, 의원출무일 운영, 제21회 임시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와 시정 질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민생현장 방문, 이동 의정실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또, 책임을 다하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민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기능 강화, 의원 연구동아리 모임 활성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제정, 의원연수를 통한 전문성 함양,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민생의회 구현, 의원출무일 운영, 효율적 회기운영과 고품격 의정활동 구현,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재검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광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2대 당진시의회는 지속적

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생활민원도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시민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 방청문의 : 의회사무국
- TEL : 350-4811~5 FAX : 355-1901
- <http://council.dangjin.go.kr>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현장방문

당진시의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공동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조례안과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도 원안 가결됐다. 또, 조례안 외에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4 제2회 추경예산안 6,981억원 등 회계 관련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2014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재광 의장은 “초선의원을 비롯한 재선의원 모두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됐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인터뷰

“의회와 행정 잇는 가교 역할 다하겠다.”

“40년 공직생활 당진시 발전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장님을 보좌해 시민과 의회,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올해로 40년 째 공직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이은홍 국장은 시 승격과 함께 안전자치행정 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

1991년도에 당진군의회 의사계장으로 3년여간 근무하고 20년 만에 다시 의회사무국으로 돌아와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힌 이 국장은 18세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975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당진시의 발전을 몸소 겪어 왔다. “앞으로 시의회의 발전은 물론 시 행정과 협력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은홍 의회사무국장

잇단 결의문 채택... 시민 목소리 대변

현대제철 본사이전 촉구 결의



안효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지난 7월 25일 제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의회 전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본사 당진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대제철이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만 배출하고 본사는 인천에 위치하여 피해는 당진에서 받고 이득은 인천에서 얻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촉구했다.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



정상영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WTO와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사전대책 없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 의 문

- 서문생략 -

첫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인천공장에 비해 면적은 8배, 생산능력은 2배가 크다. 현대제철의 실질적인 대표 공장이 당진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인천에 있다. 본사의 당진 이전을 통해 당진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로 거듭난다면 이는 당진은 물론 현대제철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서로가 상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둘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사 이전은 필요하다. 당진을 비롯한 지방 군소 도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도시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사실이다. 당진으로 현대제철 본사가 이전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한다면 당진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은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가능하다. 지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본사 이전을 통해 현대제철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임을堂堂히 입증하고 지역민과의 동반자적 신뢰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현대제철의 입지 및 무분별한 확장으로 당진의 아름다운 해안선 등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지역사회에 지속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성과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보상의 일환으로 본사의 당진시 이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제철 본사 이전은 17만 당진시민의 큰 염원이며 당진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당진으로의 본사 이전으로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상호 공감대 및 신뢰관계 형성을 이룰 것이며 이는 미래를 여는 희망찬 항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더불어 현대제철 본사의 당진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앞으로도 본사 이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결 의 문

지난 7월 18일 정부의“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한 것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오는 10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 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식량주권을 결단코 지켜 나가고자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라,

하나,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민선6기 첫 시정 질문... 심도 있는 질문 이어져

당진시의회는 민선6기 첫 시정 질문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본회의 진행을 위해 이재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현안사업 수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진행됐고,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시정 질문 첫째 날, 이종윤(11건), 김기재(5건), 정상영(6건), 황선숙(5건) 의원이 질의하고, 둘째 날, 안효권(11건), 맹봉재(10건), 양창모(6건), 양기림(11건) 의원이, 셋째 날, 편명희(11건), 인효식(8건), 박장화(9건) 의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종윤 의원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폐쇄... 시는 그동안 뭐 했나”

질문요지 :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가 폐쇄됐다. 2년 전부터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시청도 방문하고 항의집회도 하고 농어촌공사와 연석회의도 수차례 한 바 있다. 도비도는 당진9경 중 하나다. 당진시는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등 상부 기관에 건의하고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동안 시 행정이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요지 : <농정과장 한기우>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매년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상가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공사와 상가번영회, 당진시가 지난 4월 토론회를 거쳐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이행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의 재개발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 밖의 질문 : 당진시 기구·조직개편 계획, 당진시 관광활성화 대책, 농업용수로 시설 개선 및 경작로포장 예산증액 계획, 난지도 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 및 부속시설물 관리방안, 신재생 대체에너지 사용 원예단지 및 양식업 육성 계획, 대산산업단지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농촌지역 초·중등학교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경기도와 공동 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대책,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공설 및 공동묘지 관리계획

김기재 의원

“신생아·소아 전문응급의료시설 계획 있나”

질문요지 : 지역 신문에 “당진에 신생아를 위한 병원이 없다”라는 타이틀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것을 봤다. 종합병원에 소아병동은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전문의는 없다. 당진은 이주민이 많고 앞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데 젊은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의료, 교육 시설이다. 특히, 당진의 시대적 흐름과 인구 유입상황을 봤을 때 신생아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을 진료할 응급시설이 없어 야간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의료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소아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요지 : <보건행정과장 최종운>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의원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생아·소아 전용응급시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당진종합병원 응급실 소아병동을 우선 이용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신생아·유아 전용응급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당진종합병원과 협의를 해서 산부인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그 밖의 질문 : 어시장 재건축 사업(구조, 점포배치, 마트입점 등), 대중교통 운행 실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취약계층 전수조사 방법과 불시 사고에 대한 대책

정상영 의원

“축산인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지속가능한 지원책은”

질문요지 : 우리 낙농인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낙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실제 거래금액이 1만 원도 안 되고 있다. 공짜나 다름없다. 그래서 모든 축산분야에서 큰 대안을 제시해서 움직여야지 한시적으로 일부 보전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축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 <축산과장 장명환> 현재 전국평균자료에 따르면 젖소 수송아지가 약 2만 원에 거래되고 암송아지는 7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가격에 못 미치고 있다. 낙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참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용사료 지원, 출하 장려금 지원, 운송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농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당진낙농축협과 연계하여 2015년 축산사업에 생산안정 자금이 지원되어 낙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그 밖의 질문 : 연호제 정비사업 현황,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임대아파트의 납부권 유지 계획, 합덕문화스포츠센터 추진현황, 합덕 공영주차장 및 공영터미널 추진상황

황선숙 의원

“시립박물관, 많은 의문점 가지고 있어”

질문요지 : 시립박물관이 면천주민들에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박물관 부지 매입 부분에서부터 당진시와 의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예산낭비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의문점도 있다.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답변요지 : <지역자원조성과장 박병선> 당진시는 급변하는 산업도시로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그 중 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문화의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비록 문화사업이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강화역사박물관의 경우 매년 23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시에서 발굴된 8천여 점의 매장문화재와 지난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진행한 향토사료찾기 사업에서 조사된 우수 유물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상설전시회와 연 2회 가량의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과 면천읍성 등 문화유산을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밖의 질문 : 면천읍성 복원시 주민 이주대책 및 면천면 내 목욕탕 설치계획, 소상공인 지원계획, 시도 1호선 확·포장계획, 여성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안효권 의원

“민선6기 시정, 소통행정 하고 있나”

질문요지 : 당진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규제를 할 때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한다. 그런데 해제를 할 때에는 선심 쓰듯이 마음대로 규제를 푼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얼마 전 지역의 환경정책관련 협의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단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다. 또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이번에 폐지되는 업무처리지침은 경제 활성화에 손톱 밑 가시다”라는 표현을 썼다.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시장님이 취임 하자마자 첫 번째로 우리지역의 친환경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소통의 과정 없이 폐지했다. 앞으로 각종 정책 추진 시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답변요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혜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차원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친환경개발 업무처리 지침 폐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침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선6기 시정은 참여와 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든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각종 조례, 규칙, 지침 등 제정과 폐지 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 소통 없이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진시 모든 부서가 소통과 참여라는 민선6기 시정원칙을 바탕으로 소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

그 밖의 질문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그룹홈, 아동·청소년 전담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문제,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수거인력 및 장비 변동 상황,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 시내버스의 운행중단 및 미운행 벽지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해소대책,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사용방법 교육계획, 소규모 마을 통폐합 계획, 3농혁신정책 추진계획, 시립박물관 건립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낙후 육성우목장 건립에 따른 시의 입장

양창모 의원

“송전선로, 정확한 매뉴얼 작성해 대응해야”

질문요지 : 송전선로 문제가 우리 당진시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첩탑이 39개다. 그동안 이 39개에만 신경 써 왔는데 동서발전에서 북당진변전소 간 예비 송전망을 또 다시 건설하려고 한다. 당진에 첩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분명히 우리 당진시민들에게는 기존 선로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었다. 그동안 담당 과장님이 관련 예산도 세우고 집회 있을 때마다 참석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당진시의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하지 보상이 50% 미만이고, 한전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보상도 안 해준다. 우리 당진시도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나?



답변요지 : <지역경제과장 신성철> 정부는 2013년도 8월 21일 제153차 전기위원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송·배전 설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당진화력에서부터 북당진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33킬로미터를 2021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전은 2014년 7월 경 전력개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송전망 고장에 대비해 여유 송전망을 운영해야 한다며 당진화력 9, 10호기에 대한 송전불가를 통보 하였고 비용분담문제를 들어 한전과 동서발전 간에 대립 중에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중에 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밖의 질문 :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책, 오봉제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계획,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EM 활용방안 및 보급계획, 농산물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육성 계획

맹봉재 의원

“만성적자 당진항만관광공사 대책은 있나”

질문요지 :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하위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22일 안전행정부에서 공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지분매입을 당진시에 권고한 바 있고, 2013년 12월 23일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의회에서 의결됐다.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따르면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 예인선 사업, 항만안내소 운영, 합덕역 철도화물취급장 건립, 부두개발 지분참여, 항만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가지도 추진되지 않았다. 이것은 공사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똑같은 경영적자가 계속될 경우에도 항만공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요지 : <전략사업과장 이현영> 당진해양관광공사 시점인 지난해까지 경영실적 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각종 시설의 노후와 우리시의 함상공원과 비슷한 안보 체험장이 전국에 12개로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사가 함상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역점을 두었지만 금년 항만관련 사업을 추가해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공사는 공익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영해야 한다. 단기적 수익사업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예인선 사업의 지분 참여다. 현재 시장조사를 마치고 민간과 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영부두 건설사업 지분참여, 화물후계소 건립·운영,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업무구상을 마치고 조기 착수에 초점을 맞춰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밖의 질문 : 시민의 노래 활용방안, 당진시 홍보영상 제작 금액 및 업체 선정 이유, 최근 4년간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내역·위촉근거 및 활동내역,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직 방만 운영 현황, 최근 4년간 시장표창내역·수상자 혜택 및 비용내역, 최근 4년간 당진시 취업률 현황, 일자리박람회 기업체 채용 현황, 무궁화동산 설치, 탑동사거리-하이마트-원당삼거리 교통체증 해결방안, 당진항지원센터 건설에 따른 관련기관 유치 추진현황

양기림 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도청 책임져야”

질문요지 :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2014년 8월 5일 송악지구 지정 해제로 주민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피해대책위원회와 시장님과 면담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주민대책위 대표와 당진시청, 충남도청, 시의원 등 4자협의체에서 협의한 주민대책안 10개항 중 9번 항의 연 구구역 발주는 전적으로 충남도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답변요지 : <기업지원과장 이강학>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일몰제에 따른 해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산된데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주민의 실망과 각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해지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개발연구용역은 주민의 의사, 송악지구지정 및 해제의 연속성, 개발의 성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충남도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토록 하겠다. 주민피해지원을 위한 후속사업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

그 밖의 질문 : 비가림시설 교체 및 파손 승강장 정비계획, 공영주차장 민원 발생 현황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30분 무료화 계획 여부, 버스터미널 여성 휴먼간 설치 계획, 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요금현황 홍보 대책, 유해조수 포획 관련 향후 추진계획,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여부, 공공청사 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의 정책,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원도심 내 시유지 현황 및 공원조성 계획

편명희 의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적극 대처해야”

질문요지 : 국가 간에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과 당진의 도계분쟁이 법리싸움이라 하지만 일면 아쉬움이 남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의 승소 판결 후 평택시에 가뭇을 때 땅을 찾으려고 절치부심 노력했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평택에 비해서 당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 후 등록 토지는 당진군 자체적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부청리 요청해서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많은 땅을 승소판결 받았다고 당진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 문제도 2013년 8월 27일 평택시 대 화성시의 ‘모래부두’ 판결을 보면 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당진시와 충남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요지 : <안전행정과장 황명동> 이 사안에 대해 2011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계류상태를 유지하다 2013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2014년 2월 정식 재개되어 관련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4월에는 현장방문과 입주기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11년 헌법재판관 출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2014년 법무법인 2개소를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타 지자체 판결사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고 안전행정부 담당자와 연락해 수시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을 파악해 대처하고 있다. 충남도계 및 당진평택대척위원회와도 정보를 교환하고 다방면으로 대처할 것이다.

그 밖의 질문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최근 3년간 공직자 청렴도 교육실적 및 효과, 구청사 임대·관리 현황 및 활용방안, 예술인 정착촌 조성계획, 여성정 운영현황 및 주차문제,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 당진시 교육환경개선 계획과 중학교 졸업생 진학문제, 담수호 수질관리와 퇴적토 문제, 당진시 안전관리 현황, 당진시립박물관 건립과정의 문제점

박장화 의원

“도시가스 보급, 투자재원 조성해야”

질문요지 :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의 중요한 사회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시 보급률은 2013년 현재 60.5%로 당진동, 송악, 신평, 송산, 석문 등 도시 발전 축에 치우쳐있고 공교롭게도 남부권 지역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수 소외된 지역의 서민가구를 위해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인 투자재원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진시의 입장은?



답변요지 : <지역경제과장 신성철> 우리시 도시가스보급률은 60.5%로 4만 1천여 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당진1·2·3동, 송악, 송산, 신평 등 도심지와 공단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순성, 합덕, 정미, 대호지 등은 아직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2016년에 합덕, 2017년 이후에는 순성도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는 가스공급을 신청한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할 수 없으며, 우리시는 충남도 고시에 따라 100미터에 44가구 미만 지역은 공급제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수요가 적은 지역에 배관망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매년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산증액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

그 밖의 질문 : 우리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활력화 방안과 전략, 독거 어르신에 대한 현실적 대책 및 처우 개선, 농어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역 우수인재 외부 유출 방지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미래 발전계획,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향후 지원 대책, 미래지향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및 남부 역세권 개발계획, 당진항 경쟁력 강화 및 향후 활성화 대책,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강화와 시설 현대화 대책

인호식 의원

“솔피성지 세계화, 어떤 계획 있나”

질문요지 :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피성지 방문은 당진시민에게 많은 위로와 자긍심을 주었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정성껏 행사를 준비했고 상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교황이 방문한 지자체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시판에 들어가고 동남아와 여행상품을 연결하여 관광객을 맞이하는 등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근 해미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성지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순례길 등 성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지의 세계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요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은 당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주말마다 솔피성지에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다. 그만큼 교황님의 당진 방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겠다.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후속사업을 추진하려면 교황님의 한국 방문 의미와, 특히 우리 지역을 방문한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성지 개발은 장기적 비전을 통해 종합적·전문적 개발이 요구되며 합덕, 우강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피성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토록 하겠다. 세계적인 명소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고딕식 천주교 건축양식 리모델링, 버그네 순례장터 조성 및 향토밥상 등 먹거리 개발은 물론 솔피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 앞으로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밖의 질문 : 민원분쟁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에 대한 치유대책, 기업유치 현황 및 창업지원 세제혜택과 기업체 교육을 통한 관내 기업지원 정책, 남부권 인구유입 대책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소상공인의 능동적 대처 및 변호사 채용 계획,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대책,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 추진방향

밤을 잊은 당진시의회

첫 시정 질문 열정 돋보여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민선6기 첫 시정 질문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등 당진시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오전에 의원들의 질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당진시장과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선의원들도 이번 시정 질문에 대비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를 미리 숙지했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 현장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시정 질문 기간 동안 당진시의회 청사는 밤 10시까지 불을 밝혔고 (사진은 9월 16일 당진시의회 청사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다음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 새벽까지 연구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번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약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웠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제2대 당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와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안전 심의와 질문에 열정을 보여준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이동 의정실... 격의 없는 소통

당진시의회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기 위해 14개 읍·면·동에서 '이동 의정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 의정실은 제2대 당진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바람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됐다. 9월 22일 송악읍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이동 의정실은 시민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12명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이동 의정실 기간 동안 접수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건의사항 현장 및 서면건의 총 161건

합덕읍 >>>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지원 필요”

- 답변요지 : (정상영 의원) 지역구 의원, 도의원과 도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합덕제 연호방죽 정비사업 예산지원
 - 소들공원 앞 주차장 조성
 - 광역상수도 설치 요청
 - 주차단속 탄력적 운영
 - 읍면장 재량사업비 배정
 - 흥인아파트-하운 간 포장공사
 - 충무장-하운간 도로 연결
 - 인더스파크 산업단지내 사원주택 건설

고대면 >>> “석문산단, 종합운동장 출입차량 많아 통행 불편, 도로개설 요청”

- 답변요지 : (안효권 의원) 주민불편 공감하며 새 도로 보다는 기존 도로 확포장 고려. 내년 산업도로 개통되면 불편이 다소 개선될 것임.
- 그 밖의 건의사항
 - 시도4호 확포장 및 주차장, 소공원 조성
 -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장) 설치
 - 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
 - 면정 건의사항 예산 반영
 -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작물보상제 추진
 - 당진 쌀 홍보를 위해 쌀 축제 시행
 - 기계화경작로 포장
 - 농업관련 지원사업 확대 시행
 - 농로 커브구간 확장
 - 당진포1리 대형 계사건립 반대

대호지면 >>> “농어촌도로 304호(여성정-사성리) 우회도로 확포장”

- 답변요지 : (편명희 의원) 용지 매입하여 여성정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대호지면 용수로 정비
 - 농협주유소-사성2리 간 아스콘 덧씌우기
 - 대호간척지 경작로 정비사업 지속추진
 - 무선방송시설 설치
 - 도성초등학교 폐교 활용(문화·체육시설 건립)
 - 쌀 수매방법 개선 및 농약 항공살포 지원
 - 송전탑 인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신동저수지 배수문 확장
 - 대호지 창의사 성역화
 - 로컬푸드 활성화
 - 농업인상담소장 상주 건의
 - 4.4독립만세운동 기념벽화 건립

면천면 >>> “시립박물관 건립 정상 추진해야”

- 답변요지 : (박장화 의원) 시립박물관 건립 간담회 결과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음. 집행부와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면천읍성 복원사업 조속 추진
 - 작은목욕탕 건립 추진
 - 면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 시의원 공약사항 철저한 이행 당부
 - 당진 주요관광지에 면천읍성 포함 건의

우강면 >>> “성원리 양계장 신축 저지해야”

- 답변요지 : (인효식 의원) 양계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의 땅 한 평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양계장 신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속 추진
 -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인 지원 확대
 - 솔피성지 관광자원화
 - 용배수로 정비, 송강장 개보수
 - 유기질 퇴비 보조사업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확충
 - 노인대학운영 지원 강화
 - 119 긴급출동체계 개선
 - 경로당 운영비 예산 지원

송산면 >>> “낙협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반대”

- 답변요지 : (안효권 의원) 낙협 측에 송산 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서원천 및 농어촌도로 202호선 정비
 - 송산농협 DSC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지정
 - 농어촌도로 204호선 시점 도로확포장 조기 착공
 - 송산 면민을 위한 쉼터, 공원 조성
 - 시도5호선(기지사-송산 상거리) 인도 확보
 - 삼월리 배수로, 백석천 정비사업 추진
 - 송산중학교 교실, 시청각실 지원
 - 보건지소 필요 의약품 지원
 - 논두렁구조화사업 지속 추진
 - 가곡리 주변 환경오염 대책

당진2동 >>> “공영 주차장 설치, 주민불편 해소해 주길”

- 답변요지 : (편명희 의원) 당진2동 공영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당진2동 청사 재건축, 대덕동 게이트볼장 설치
 - 하수관거사업 추가 및 도시가스 설치
 -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조기추진
 - 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로등 확충
 - 당진정보고 앞 5거리 원형교차로 설치
 - 준공 전 아파트 건설관리 철저
 - 횡단육교 경사로 및 도로 보수
 - 주민의견 통합·조정기구 설치

송악읍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

- 답변요지 : (이재광 의장)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피해대책 10개 요구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고대1리 기업체 공해배출 관련 민원
 - 상록문화제 본행사 개최 및 테마거리 조성
 - 북당진-신당정 간 송전선로 지중화
 - 월곡리 채석장 응급 복구
 - 줄다리기 축제작장-박물관 노선 단절 반대
 - 하수관거 정비 시 전선 지중화
 - 북당진변전소 건설 반대
 - 정주여건개선비로 주민복지시설 건립
 - 송악읍청사 건립 조속 추진
 - 감골주유소-송악중학교 간 외곽도로 신설

석문면 >>> “석문국가산단-마을 간 진출입로 확보 요청”

- 답변요지 : (이종욱 의원) 1992년 국가산업단지 승인 시 산단 내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산단을 둘러싼 진출입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이 사실임. LH사업단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통정1리, 삼봉4리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 원장고항-용무치 간 해안도로 개설
 - 당진시 보존관리지역 규제개혁 필요
 - 공무원 비리·부정,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필요
 - 난지도 선착장 관광객 쉼터 확충
 - 국도38호선 조기 완공
 - 발전소 1~8호기 돔 설치
 -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수렴

정미면 >>> “신당진변전소 송출 정비공사, 주민 생존권과 직결”

- 답변요지 : (이재광 의장) 송전선로 문제는 당진시 전체의 가장 큰 문제임.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정미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 무선방송시설 설치
 - 농어촌도로 개량사업 조속 추진
 - 경로잔치, 4.4독립만세재현행사 예산 증액
 - 모평리 용원 취수장 농업용 수리시설로 교체
 - 친환경 다목적 방역차량 지원
 - 사관리 '수당천' 명칭변경
 - 도로변 갯길 설치
 -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예산 증액
 - 공사 중단현장 재해예방 대책 마련
 - 은봉산 등산로 정비, 봉생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설치
 -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예산 지원

순성면 >>>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반대”

- 답변요지 : (박장화 의원) 사업자의 기 투자금액 문제가 있어 시와 협조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 매입
 - 도시가스 진입관로 매설
 - 구절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시립노인요양원 하수처리시설 설치구간 연장
 - 도시계획도로 조기 착수
 - 지방도 615호선 확포장
 - 합덕테크노폴리스 해제에 따른 지원사업비 증액
 - 갈산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추진
 - 광역상수도 설치, 상수도 절까지 복구
 - 시의원 공약사항 임기 내 추진 당부

신평면 >>> “345KV 송전선로 문제, 적극 대처해 주길”

- 답변요지 : (양창모 의원)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송전선로 반대 결의도 한 바 있고, 중앙부처, 한전 등 항의방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음.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업용수로 복개
 - 세한대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속 추진
 - 농업인상담소 설치
 - 삼교호관광지 환경관리 및 삼교호 수질개선
 - 신평면 복지회관 신축규모 확대
 - 당진항 내항 연육교 건설 추진
 - 신당리경로당 TV 구입 지원
 - 세한대학교 시외버스 노선 경유

당진1동 >>> “당진1동 청사 신축 절실”

- 답변요지 : (김기재 의원) 당진1동 청사는 시설 노후와 주차장이 비좁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청사 신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구도심 천변도로 확장
 - 환경오염 보상체계 변경, 공무원 친절교육
 - 시장 내 CCTV 수리 및 증설
 - 쓰레기 수거 및 단속방법 개선
 - 인도 경계석, 가로수, 불라드 정비
 -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
 - 시장 인도 불법점용 단속
 - 읍내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진3동 >>> “32번국도 소음문제, 안전조치 시급”

- 답변요지 : (맹봉재 의원) 2015년~17년까지 20억 예산으로 저소음포장을 추진 중임. 경찰서, 시청 도로과와 협의해 단속카메라, 인도, 차선규제봉 설치를 추진하겠음.
- 그 밖의 건의사항
 - 롯데마트-송산(대로1-2) 도로 개설
 - 도시계획도로(원당3거리-우두동) 개설
 - 당진3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 원당동 LPG충전소-우두동 초입 인도 개설
 - 우민아파트 진입로 양방향 확장
 - 장수산 수목 관리 및 식수대 설치



제21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9건 : 계획안1, 조례안7, 결의안1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합덕성당의 역사, 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합덕성당을 방문하는 방문객, 순례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성당 주변지역 정비 및 농협 창고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2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및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체계 개정(일률적 과세방식에서 독립세율 과세방식으로 개정)

3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을 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4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 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선택예방접종 접종비 중 일부 지원대상 추가에 따라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폐구균 선택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포함되어 삭제

5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환경부예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화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며,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 기존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6 당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조항(시 관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을 추가

7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의 책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사항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사항, 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할인조항 추가

9 현대제철 본사 이전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안효권 의원 외 11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당진 지역에 있는 현대제철에서는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만 배출하고 본사는 인천에 위치하여 피해는 당진지역에서 받고 이득은 인천지역에서 얻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 및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촉구

제22회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10건 : 예산안1, 승인·동의안3, 조례안5, 결의안1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계	698,145,204	630,984,607	67,160,597
일 반 회 계	593,579,613	531,423,385	62,156,228
특 별 회 계	104,565,591	99,561,222	5,004,369

※일반회계 87,500천원 삭감

2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세입>

구분	예 산 액			세 액		
	예산현액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비율
구 분	775,743,938,000	683,250,022,000	92,493,916,000	825,633,435,900	795,117,403,060	96.3

<세출>

구분	예 산 액			집행 및 이월액		
	예산현액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구 분	775,743,938,000	683,250,022,000	92,493,916,000	609,449,559,670	124,254,110,020	42,040,268,310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겨울철 제설작업 : 200,000천원)에 대하여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회 승인

4 송산2일반산업단지(2-3공구) SPC 출자 동의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송산2일반산업단지 2-3공구 사업시행자 참여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당진산업개발(주)의 설립자 본금 총 10억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출자코자 하며, 이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당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발 의 자 : 양창모 의원 외 8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원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회피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자문회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토록 규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정

6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편명희 의원 외 9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7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

8 당진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중복을 해소하고자 당진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

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당진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0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안

- 발 의 자 : 정상영 의원 외 11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며, 쌀 개방에 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줄 것을 촉구



지방자치는 공유의 예술



이재광 의장

7월 1일부터 민선 6기와 제2대 당진시의회가 시작되었다.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지역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하나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가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첫 번째 이유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간의 혼재 속에서 지방자치가 더디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사실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성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율권을 신장시켜 주고, 자유와 기회, 다양성을 열어준다. 통제적 정부의 출현을 제어하고, 지방행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면서 그

자체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장치로의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정에서의 권력 박탈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자 내지 관료제는 자기 영역을 무한히 팽창해 가는 속성이 있는데, 역으로 자신의 권력이 축소되다보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마치 지방자치의 역기능쯤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권력과 이념, 그리고 정책을 수렴하면서 이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가 관건이 된다. 모름지기 모든 제도는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역량이다. 지방자치는 지방간의 창조적 정책경쟁이며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의미한다. 물론 많은 영역에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제약이 존재하고, 조직 내 위계적 서열구조, 행정편의주의, 선심행정, 보신주의와 무책임주의 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자산임은 자명하다.

셋째로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지역 간에 혹은 소지역간에 이기심과 편 가르기가 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불공정한 배분과 행정적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상호 협심탄화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행정불신 현상이다.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은 행정을 대하는데 있어서 먼저 불신감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행정은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원천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비록 불신문제는 행정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며,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가 공통의 이익을 창출해 가는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행정과 주민 모두가 협력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가는 지혜의 예술(art)이다.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몫이다.

이름값



편명희 부의장

얼마 전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또 누구의 무엇으로 사는 것에 지쳤으니 이제 그만 이혼하겠다고 절규하는 한 여배우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눈물이 났다. 어떤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무심코 지나치며 잊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덕에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기 위해 오늘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이 된다.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지난 4년 의원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본다.

후회도 하고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자는 다짐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의원이라는 이름이 많은 주민들의 손길로 만들어 졌음을 명심하고 사랑의 빛을 갹아 가는 심정으로 일해 왔다. 언론에 비친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하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큰소리치던 교주의 죽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정치인, 누구라는 이름으로 앉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 못 하시는 분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이름값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세상은 국가는 사회는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의 질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라난다고 볼 수 있다. 명량해전의 기적을 이룬 이순신장군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우리는 열광하고 있다.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삶에 대한 사명감, 희생 그리고 자기 절제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기 때문 이리라.

사람들은 흔히 리더는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 한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아들은 아들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이름값을 하며 이름이 주는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세상을 견고하고 밝은 멋진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살기 원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이름이 주는 책임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의결기관의 역할



이종윤 의회운영위원장

새로 구성된 의회는 지난 의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제부터 그동안 부진했던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이종윤 의회운영위원장 감시를 실질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는 엄격히 견제하고, 단체장이 의회와 함께 포용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과 협력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주민들의 민의를 토대로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엄격한 견제와 감시가 오히려 단체장과 집행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등 제반 활동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의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빙자하여 집행부의 행정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기관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취약했다고 비판 받아온 의회의 정책기능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회 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구조·기능을 혁신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주민복지 증진이나 생활개선에 관한 장·단기적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집행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 시책개발을 촉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특성에 따라 자치역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자치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화 시대의 과제이다. 지방정부는 주어진 정치적·제도적 여건 아래에서 각종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지원과 협력을 통한 협동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부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협동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회 스스로 혁신해야



인호식 총무위원장

당진시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4년간의 임기를 통해 과연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철저한 목표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극적이고 저조했던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혁신과 역할 기능 확충 및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의원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역할 인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의원의 직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등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인식 변화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책무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의원들의 상근체제와 공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의회는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해야 한다.

셋째, 의정기능을 보좌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의회 사무기능의 전문성과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의회사무기구 내에 의정지원기구를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구조와 기능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그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넷째,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와 학습, 훈련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창조적인 리더십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회의 성패에 좌우되고, 지방의회의 성패는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의원 스스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의회 내의 상임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혁신하여 그 활동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특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위원회별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겸손하고 정직하며 뚜렷한 정치철학을 가져야 한다. 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정직이다. 때문에 의원들은 직무 전문성 제고 못지않게 공직자로서 인성과 품위를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정치적 목적과 철학을 지닌 겸손하고 정직한 주민대표가 되도록 노력 해야한다.